

농어촌공, 가뭄 극복 '맞춤형 물관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 확보·공급방안 마련 전국 54개 저수지 대상 물그릇 키우기 사업 박차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화 된 가뭄 극복 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주요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물 관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 확보·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선제적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토사 퇴적으로 담수 능력이 크게 저하된 전국 54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준설을 실시해 용수 233만t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저수지 물그릇 키우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평년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영농기 전까지 저수지 물채우기 등을 통해 6월까지 926만m³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저수율을 평년대비 9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추가 용수 확보가 어려워 수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도서(섬)지역, 평야 지대 등은 인근 하천의 여유수량

을 활용한 물길 잇기,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중 용수 공급이 필요하거나 저류공간이 부족한 가뭄 상습지역은 시범사업으로 상시 활용 가능한 지하댐 건설도 추진된다.

용수 확보 다각화를 위해 추진되는 지하댐 건설은 현재 예비 후보지 472곳을 조사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염도 상승이 우려되는 간척지는 지역주민과 물 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수량·수질에 대한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대체 수원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가뭄 합동 대응을 위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곳곳에 산재된 수자원 공유 강화를 통해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공사는 현재 경주 삼문물사업소와 버려지는 하천수(1일·약 5만m³) 재활용과 '울산포항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주요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물 관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 확보·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가뭄극복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양수저류를 통한 저수지 물채우기 장면.

간 고속도로 터널수(1일·약 3000m³)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전남 서북부 지역의 생활 용수 부족난 해소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장성호 등 농업용 저수지에서 용수를 지원하는 수자원 공동 활용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종욱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

리사는 "가뭄 등 기후변화가 일상화 되면서 영농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역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확 달라진 방문간호사업 눈길

광주 동구는 주민 건강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18년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동별 방문간호사가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한 후 혈압, 혈당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어르신 등의 대상자를 7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0세군(0~12개월)으로 확대하고 방문간호사 2명을 확충해 모두 7명의 방문간호사가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한다.

서구, 임신~출산 원클릭 맞춤형서비스 이용

광주 서구가 운영 중인 원클릭 임신~출산 Ore-Click 맞춤형내 서비스 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신출산 Ore-Click 맞춤형서비스는 임신·출산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검색 및 알림 서비스다.

사용자의 기본 정보 분면예정일, 출산 순위 등을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맞는 보건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관련기관의 보건, 의료관련 정보를 다양한 웹검색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남구, 슬레이트 철거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광주 남구는 주택 철거시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올해 8,4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사업비가 조기 바닥을 드러낼 수 있으니 신청을 빨리 해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이며, 공장이나 단독 창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북구,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집중관리

광주 북구가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관내 해빙기 재난 위험지역 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해빙기 지반 침하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사전에 점검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 시설물은 재난취약지역 일제조사물 통해 선정된 급경사지 35개소, 연면적 495m² 이상 미사용승인 건축물 11개소, 산사태취약 지역 19개소, 노후주택 2개소 등 총 69개소로 위험발생요인 사전 차단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운남동 청소년 환경정화 행사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자원봉사캠프 캠프장(조아영)가 지난 20일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봉사에는 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 40여 명이 함께 했다. 청소년들은 이날 운남주공 6단지 7단지 도로 인도 그리고 수로의 쓰레기와 낙엽 등 900kg을 수거했다.

운남동 자원봉사캠프는 그동안 풍영정전 뒤쓰러지기 운동, 연탄나눔봉사,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 환경정화 활동을 주민 주도로 지속하고 있다.

운남동자원봉사캠프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너도나도 청소년 봉사 날로 지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임형택 기자

윤난실, 오늘 독일지방자치 연수보고회



최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윤난실 전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왼쪽)은 23일 오후 3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독일지방자치 연수보고회를 가진다.

"독일, 지방·시민 자율적 결사체 강한 사회"

"광주와 광산, 자치분권특별도시 만들고파"

최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윤난실 전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23일 오후 3시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독일지방자치 연수보고회를 가진다. 이번 행사는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독일민주주의 기

행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이들은 독일 지방정치와 자치분권 사례와 모델을 통해 광산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에선 ▲독일 민주주의와 정당 및 정치(막상훈 정치발전소학교장) ▲독일의 지방자치(윤난실) ▲독일 노동운동과 청년활동(배준영,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독일연수 개요보고(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등 정치학자와 청년운동가들이 주제별 보고를 한다.

더불어 2부 토론회에서는 "광산의 지방자치,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주민과 마을활동가, 지역인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산마을과 디오로도 생중계된다.

보고회를 준비한 윤난실 전 센터장은 "독일은 중앙이 아닌 지방이, 관료체계가 아닌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가 강한사회였다"며 "광주와 광산을 '자치분권특별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올해 일반농산어촌 개발 1470억 투입

전남의 농촌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12개 분야 총 369건의 사업에 14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39억 원보다 235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별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3개 분야 55개 지구 723억 원, 마을 만들기 6개 분야 109개 지구에 361억 원, 지역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3개 분야 205개 지구에 386억 원 등이다.

사업은 크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 강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읍면 소재지에 경제·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집중해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마을 만들기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경관·생태시설,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임대상속중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